GPU (Graphics Processing Unit)

유래 : 엔디비아사에서 1999년 ‘지포스(GeForce)’라는 이름의 그래픽 카드 용 칩을 내놓으며 처음 제창.

목적 : 게임에 입체감을 부여하고자 3D Graphics가 본격적으로 도입. CPU 혼자서 처리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보조할 **3D 그래픽 연산의 전용의 프로세서**가 개발되어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기 시작.

복수의 GPU로 그래픽 성능을 높이는 ‘멀티 GPU 모드’

: 한 대의 PC에 2개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함께 꽂아 멀티 GPU 환경을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.

※ 이를, 엔디비아 지포스는 ‘SLI (Scalable Link Interface)’, AMD 라데온에서는 이를 ‘크로스파이어 (CrossFire)’라고 부른다.

CPU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‘GPGPU’

: GPU의 자원을 이용해 그래픽 작업 이외의 범용 작업을 하는 것.